



# 대타 장성호

시즌 5호... 8회 짜릿한 '손맛'

# 역전 만루포



## ‘찬란한 8월’... KIA 20승 챙겼다

KIA의 8월은 찬란했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15차전에서 장성호의 대타 만루홈런으로 6-1의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장성호의 홈런포로 월간 20승 고지를 밟은 KIA는 난적 두산과의 대결에서 싸늘이 3연승을 거두며 1위 자리를 더욱 탄탄하게 굳혔다.

초반 흐름은 두산이 주도했다. 1회말 선발 윤석민이 두산의 테이볼 세터 고영민과 이종욱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3번 이원석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냈지만 김현수의 1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고영민이 홈을 밟았다.

상대의 호수비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KIA의 침묵은 7회까지 이어졌다. 8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이용규의 2루타가 잡자 KIA 타선을 깨웠다. 이종범의 희생번트와 나지완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3루에서 최희섭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두산 천적 김상현이 몸에 맞는 볼로 걸려

한달 최다승 기록 경신... 호랑이, 꿈과 주말 '단군대전' 싸늘이

한국 청소년 야구, 6년만에 우승

나가면서 1사 만루, KIA는 장성호를 대타로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웠다. 장성호는 바뀐 투수 이재우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만루 홈런을 장식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김원섭은 방대부 홈런을 터트리며 두산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1회 불안한 출발을 했던 윤석민은 7이닝 동안 2피안타 2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시즌 9승째를 올렸다. 이날 등판으로 116과 3분의1이닝을 소화한 윤석민은 규정 이닝을 채우며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SK 김광현(2.80)을 누르고 평균 자책점 1위(2.79)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승리로 원정 6연승을 달린 KIA는 두산의 추격을 뿌리치며 한국시리즈 직행의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KIA의 8월 행보는 숨가쁘다. KIA는 단 한 차례도 연패를 기록하지 않으며 20승을 채

우며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다. 김상현도 8월 한 달 15홈런 38타점을 기록하며 이승엽이 가지고 있는 역대 월간 홈런, 타점 기록과 타이틀을 기록했다. 한편 미리보는 포스트 시즌으로 관심을 모은 양팀의 대결을 보기 위해 구름 관중이 몰려 새로운 매진 기록도 써졌다. 28일부터

**수비달인 김종국 1군행**  
**구름손 피로누적 2군행**

피로가 누적된 구름손과 '수비의 달인' 김종국이 1·2군 자리를 맞바꿨다.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은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67일 만에 1군 무대를 밟았다. 5회말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김선진 대신

30일까지 열린 KIA와 두산의 경기에서 3만 500석이 가득차면서 14년만에 잠실 3연전이 매진 기록이 달성됐다. 30일에는 입장권 판매 개시 24분 만에 표가 모두 품이 나면서 프로야구 사상 최단 시간 매진기록도 작성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루수로 투입돼 자리를 지킨 김종국은 지난 6월24일 있던 수비 실책을 기록하는 등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2군으로 내려갔었다. 28일 두산전에 등판해 시즌 13승을 챙겼던 구름손은 어깨 피로 누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지난 28일 경기에서 6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구름손은 앞선 두 차례의 등판에서도 6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등 피로가 누적, 2군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한국이 제8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박태호(대구고)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대만을 9-2로 물리쳤다. 1996년과 2003년 우승했지만 2005, 2007년 두 대회 연속 준우승에 그친 한국은 대만과 일본, 중국을 잇달아 격파한 데 이어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대만을 꺾고 4전 전승으로 6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다. 초반부터 대만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25일 예선 경기와 달리 한국은 번번이 기회를 날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다. 1회초 2사 2루에서 대만의 귀푸린에게 적시타를 맞아 선취점을 내준 뒤 바로 1회말 문상철과 김경도의 연속 안타로 1-1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후 선수들의 실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선수

들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1로 팽팽하게 맞서던 6회말 1사 1·2루에서 대타 조운성의 좌전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이어진 2사 2·3루 기회에서 강민국이 우중간을 가르치는 3루타를 터뜨리며 단숨에 2점을 보태며 4-1로 달아났다. 7회 1사 1루에서 세 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해 3분의2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막은 에이스 문상철은 이번 대회에서 11%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0.77을 기록,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또 일본과 경기에서 끝낸 플레이가 나왔다. 5회부터 작전에 따라 서만 플레이하라고 지시한 뒤 선수들이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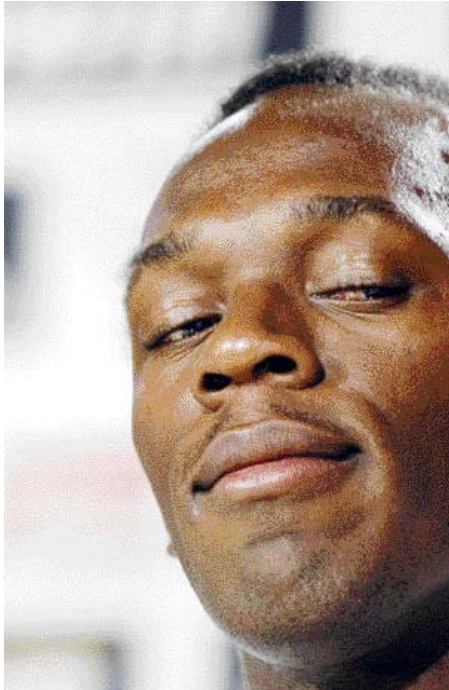
##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한국온다

### ‘번개’ 볼트 내달 대구국제육상대회 출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다음달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벌어질 2009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한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볼트가 대회에 참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에서 휴식 중인 볼트는 9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초청 대회에 나선 뒤 곧바로 한국행 발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해성같이 등장해 단거리 3관왕을 차지한 볼트를 데려오려고 일찍부터 접촉해왔고 24일 막을 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세계신기록 2개를 수립하는 등 3관왕을 달성한 볼트는 초청료로만 최소 수십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앞두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구 조직위원회는 볼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배팅했고 마침내 방한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조직위원회는 볼트 뿐 아니라 각 종목에서 이름 있는 스타들을 여럿 데려오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선화 ‘시즌 첫승’ 손짓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이선화(23·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올 시즌 첫 LPGA 투어 우승을 노리게 됐다. 이선화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이너의 콰인리지 골프장(파72·6천 546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선두 안나 노르드퀴스트(스웨덴)에 1타 뒤져 3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2승을 거뒀던 이선화는 올해는 16개 대회에서 7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스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으로 10위 이내에는 세 차례밖에 들지 못했다.

전날 9홀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꾼 이선화는 후반 14번홀(파3)과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으면서 2타를 줄였다. 미국과 유럽 여자프로대회전인 솔하임컵에서 미국대표로 맹활약한 위성미(20·나이키골프)도 이날 버디 5개, 보기 4개로 1언더파 71타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로 공동 15위를 달렸다. 전날 2오버파로 부진했던 신지애(21·미래에셋)는 이날 1,2,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버디 5개 보기 2개로 3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로 40위권에 든 신지애는 첫 탈락(기준 중간합계 1오버파 145타)을 면했다. /연합뉴스